
하느님의 계획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2주간

제2주간: 하느님의 계획 들어가는 말

「창세기」는 ‘하느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려진 모든 것과 미지의 것들의 시작, 우주의 시작, 세상의 시작과 당신 자신의 시작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시작의 시작입니다.

피정을 시작합니다. 이 즈음에 당신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응시와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분의 지와 희망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처음 상상하였을 때에 당신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갈망입니다. 당신이 당신인 것은 하느님이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원했으며, 구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여서입니다.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당신의 자아가 하느님의 사랑과 갈망으로 깊어지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하느님을 갈망하는 천성을 타고났습니다. 하느님이 심으셨지요. 이번 주간에 구하는 은총은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는 하느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과 당신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느님의 열망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을 향해 자라고 싶은 나의 거룩한 열망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길은 당신을 돌보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나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아랑곳하지 않지요. 당신이 숨 쉬는 공기 중의 산소를 얼마나 자

주 생각합니까? 당신을 끊임없이 잡아 주는 지구의 중력을 언제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마음을 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건 말건 그렇게 하십니다.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당신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느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묻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올까?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편안한 방식은 쉽게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나 도발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사랑은 미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해 보세요. 스스로 나약하거나 부서졌다고 느낄 때 혹은 해매고 혼란에 빠졌을 때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안절부절 못하고 뭘 해야 할지 간절히 구할 때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때에 하느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셨지요? 경이와 놀라움의 순간은 어떤가요? 그때 하느님은 당신을 어떻게 초대하시던가요?

이번 주간 피정의 핵심은 1요한 4,10에 잘 요약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과 함께 탐색하고 궁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당신을 사랑한 현실을 생각하세요.

기도 도움말

성찰*: 양심성찰 = 의식성찰

아테네의 공동우물 석판에는 “너 자신을 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더 나아가서 “성찰되지 않은 삶은 누구도 살 만한 가치도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우리 매일의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 아니라, 10배의 천성이라고 하면서, “가질 만한 선은 매일의 노력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즈음 당신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2코린 13:5 참조)

성 바오로는 자신을—습관과 태도 및 그것들을 형성한 믿음을 포함하여—성찰할 때에만 이 진실을 살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참되고 진지한 영적인 생활은 적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자신의 성찰을 요한다는 것을 수 세기를 거쳐 오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약간 체계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조직적인 수행 방법이 있다면 일상 성찰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청사진 같은 것만 있어도 세세한 방법론에 매이지 않고 성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증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에 의해 5세기 전에 교회 영성에 도입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다섯 개의 요점을 따라 수행됩니다.

-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
- 깨달음과 빛을 구한다.
- 자신을 본다. 무엇을 했고 느꼈으며 생각하였는가.
- 잘한 것, 선한 것을 주님께 바친다. 잘못된 것,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성 이냐시오는 NASA의 과학자처럼 조직적인 사람이어서 한 번에 하나의 습관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이 후회하는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털어 내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덕목이나 실천적 기능을 연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성찰을 함에 있어서 핵심 요점은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24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일이나 큰 사건을 살피거나 주님 안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성찰은 다섯 개의 “요점들” 혹은 계기들로 서로 나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분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요점이나 계기를 충실히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를 보면서 이 계기들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현명한 사람은 성찰을 시작할 때에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과 하루 생활에 선한 것들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었고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영이 어떻게 당신을 이끄시는지를 알아보는 감각을 키워 가려는 것이니 기도로 빛을 구하세요.

이 성찰은 당신 자신과 삶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찾습니다. 하느님이 어디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알면 하느님이 당신에게 어디를 바꾸라고 부르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면 내일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될 겁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밤에 성찰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 해도 되고 아침 모닝커피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매 시간 단위로 성찰하기도 하고, 사건이나 만남을 단위로 하여 성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루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떠올리고 그 생각과 느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찰합니다. 당신의 방법을 찾으세요. 어찌 되었든 “성찰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도록 유념하세요.

* [역자 주] 스페인어의 conciencia는 consciousness(의식)도 되고 conscience(양심)도 된다. 따라서 Examen de conciencia는 양심성찰과 의식성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어감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윤리, 도덕적인 면이 강조되어 책임이나 과제, 결심을 잘 수행했는지 혹은 나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살피는 점을 부각시킬 것 같다. 반면에 후자는 나의 의식이나 의식이 무엇을 향했는지 그리고 선한 영과 악한 영 가운데 어느 것을 따랐는지를 성찰하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냐시오의 실행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느님의 정신 안에 하나의 생 각이 되는 것, 그분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렉시오 디비나의 좋은 점, 이 방법은 당신의 영혼 상태에 와닿는 구절에서 마음을 열게 해 줍니다. 집중 한 것들 외에는 남겨 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돌아가도 전부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사랑이 한처음에 시작되고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와 피조물에 주목합니다.
그분은 모두를 아시고, 당신을 아시죠. “좋다.”고 하십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창세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단상 한처음에

당신이 진화의 가장 최근 순간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 당신은 수억 년의 목적 없는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빅뱅으로 시작되어 수억 년의 의미 없는 변화를 거치고 보니 결과적으로 당신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가 죽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은 다른 것들도 진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매우 뛰어난 인물들, 즉 칼 세이건과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같은 이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오직 지구에서만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뛰어난 이들은 달리 믿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데카르트, 조지 워싱턴, 토마스 머튼, 엘리너 루스벨트, 플래너리 오코너, 닐 암스트롱.

그들과 함께 다른 가능한 길을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했습니다. 엄청난 빅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직관을 처음 제시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벨기에의 한 사제였습니다.) 그 총체적 혼란 속에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로 형태와 질서가 새겨졌습니다. 하느님은 수억 년 동안 이것들을 전개해 왔고 마침내 당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작이 이렇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만족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무수한 원자와 에너지를 무한한 시공간 안에 펼치신 것이 바로 사랑하는 당신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전하러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찬미 예수님!

메모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창조는 지속적인 행위이며 한 차례 발설된 단어나 무심한 손짓이 아니다. 하느님은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지탱하고 계신다. 모든 움직임에 함께 작용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여지를 주신다. 지구 전체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축복으로 채우신다.

- 마틴 다르시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성경 기도를 숙제를 해치우듯이 하지 마세요. 새로운 성경구절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있는 자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영적 수련인 양심성찰(=의식성찰)에 들어가면서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창세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하느님이 선택하시어 나로 하여금 특정한 시공간, 특정한 부모님과 인종,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살게 하셨다.

언제 태어났고, 부모님이 누구인지,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중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들은 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특성들을 적는다.

눈 모양, 키, 인성, 지적인 능력 등, 이 중에서 감사하는 것들은 이다.

나의 성품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는다.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것들은이다.

나의 성품들 가운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적는다.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이다.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하느님이 보시듯 선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이다.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들 취향에 맞는 친구를 만들어, 우리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 친구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성경 말씀과 구절들을 생각하세요.
주님께 그 말씀과 구절들에 대해 말씀도 드려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지탱하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 그리스도님은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거기서 자유도 나옵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에페 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단상

진짜 엄청난 빅뱅

오늘날 일반 여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도) 우주가 빅뱅(=대폭발)이라는 하나의 원천에서 생성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르가 1927년에 발표하였고 이를 의심하는 아인슈타인 등의 학자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빅뱅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과학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2=4$ 처럼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빅뱅이 있었다면, 그것도 창조된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빅뱅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그냥 일어났다.”고 하고 말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빅뱅을 일으켰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한처음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종말 뒤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들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다른 것도 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그 ‘제작자’를 봅니다. 오래된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모든 별들과 산들, 동물과 식물들 등, 만물은 과학이 발견하고 계속 발견할 계획에 따라 여전히 진화합니다.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창조하시며 그 계획도 창조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오래된 질서에서 새로운 창조, 인류에게 우리 자신의 육(肉)을 지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7-18 참조)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화의 법칙’과 모든 개별 피조물의 작동 질서를 인정합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구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단지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있는 작고 푸른 공이 아닙니다.

인류는 하느님 권능의 승리입니다. 몇 킬로그램에 불과한 진흙덩치가 걷고 보고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힘없이 태어난 피조물이 자라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계산하고 의도를 갖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류는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다른 것을 알기에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빅뱅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것이다.”(마태 25,31)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로마 6,4)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메모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 스바냐 3,17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성경으로 기도할 때에 시사 정보지처럼 읽지 말고 연애편지를 읽듯 하세요.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성부 하느님을 계시하고,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할 겁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과 당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매일 성찰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욱 닮는 길을 늘 찾게 될 것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당신은 하느님에게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 가운데 들도록 정해졌습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에페 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성경에서 내가 거룩함의 인장을 받았다는 것을 읽을 때 내 느낌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을 하고 싶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에는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친구입니다. ……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 2코린 5,20; 6,1 참조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의 선물로 성령께서는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마음을 열어 줍니다.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탱하고 계속 창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욱 닮는 길을 늘 찾을 것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나는 세례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와 의무를 받았다. 내 삶의 희망은 돈이나 외모, 좋은 평판에서 나오지 않으며, 고통이 나를 주저앉히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희망을 산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로마 8,14-28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시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상

세례 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났고 한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다른 아이들과 (또는 어른들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울어 대는 것, 기저귀 착용 등).

게다가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면서도 다른 어린이나 젊은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랄 때의 모습이나 행동은 아마도 98% 이상 비슷할 겁니다. 오늘까지도 당신 세계에서 어떤 비신자나 타종교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로워졌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육을 지닌 채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까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라고 주시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사랑할 권리와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나라의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릅니다.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어찌면 몰래 당신 안에서 당신의 선익과 당신이 사는 세상의 선익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당신은 지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살고 있습니다.

메모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사랑은 서로 자신을 내어 주게 하고,
자아 회복으로 마무리된다.

- 폴턴 원 주교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과 이해력을 부요하게 하지요.
성령께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마음을 열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영적 수련인 양심성찰에 계속 마음을 여세요. 부정적인 점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진실을 잊지 마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항상 희망의 현실로 형성하고 지탱해 줍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로마 8,14-18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나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다. 이것이 내게 의미하는 바는 이다.

나는 희망을 이라고 정의한다.

내 구체적인 삶의 환경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이다.

하느님의 계획

청하는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하루 온종일 느끼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침묵의 열매는 기도다.
기도의 열매는 신앙이다.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섬김이다.
섬김의 열매는 평화다.

- 캄케타의 마더 데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성경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보내신 일련의 연애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애편지처럼 거듭 읽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마음을 열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이번 주간에: 하느님이 당신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항상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탱해 주시며, 형성하시고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당신은 하느님에게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탄생과 성숙, 죽음의 생애주기를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 가운데 들도록 정해졌습니다.
4. 청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해 주세요.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이사 6,1-9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단상

하느님의 통치와 개인적 성소

하느님은 영겁의 시간 동안 생명을 진화시켜 생명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2항)

어디로 진행한다는 것인가? 왕국을 향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은 이 지구상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제자들이 그 일을 시작하도록 뽑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희망이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당신과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을 해 나갈 백성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같은 백성, 그분의 형제자매들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능케 하는 데에 제각각 소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자유롭게 관대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 나자렛 예수님을 본받아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요한 5,19 참조) 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이 당신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한데 모으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당신 왕국의 약속이자 시작입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일입니다.

메모

표지석

- 열정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모든 우리 존재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 과학자들이 자신 있게 탐구하고 측량하고 이름 붙이는 패턴, 디자인, 법칙이 하느님의 계획이다.
-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이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해서이다.
-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불렸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으로서 하느님이 인류가 어떠한가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처한 시간과 장소에서 보여 준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